



한·일 가톨릭 의료 협력 체결 20주년 기념 강연 '인격' 과 '사قم'

한·일 가톨릭 의료 협력 체결
20주년 기념 강연 『人格と交り』
(Human Person and Communication)
九州大學名譽 教授 純心大學院教授
稲垣良典(이나가키 료우스케)

- 일시 : 2007년 10월 17일(수) 18:00
- 장소 : 르네상스호텔 創世(소우세)
- 주최 : 한국가톨릭의료협회, 성마리아병원그룹

I. '인격' 의 윤리학적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인격(人格)' 그리고 '인격'의 권리, 존엄성 혹은 이를 침범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하여는 많은 의 논들을 하고 있으나, '인격'이란 무엇이며, 그 가치나 존 엄성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냐에 대하여서는 별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

는 '인격'과 '인격의 존엄성'은 강조되고 있으나, 그러한 '존엄'이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인격에 어울리는 생활양식이나, 행위에 대하여서는 인격의 존엄성을 떨어 뜨려서는 안 된다는 의무는 없고, 타이르는 데 그치고 있으며, 그러한 삶이나 행위의 본연의 자세에 대하여 상세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도 드물다.

또한 우리 모든 행위의 밑바닥에는 어떠한 의미에서 건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있으나, 우리는 어떻게 '인격'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일까.

Pascal은 “사람은 결코 인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성질을 사랑할 뿐이다”라는 말을 남기고 있으나, 이 Pascal의 말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득할 수 있는 반론을 현실 생활에서는 물론 윤리학 속에서도 찾기 어렵다.

또한 인격 형성을 교육이념으로 삼는 것은 거의 교육의 제일 원리의 확인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새삼 인격의 형성이란 면밀하게는 어떤 것이며,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 것인가를 물으면 곤욕스러운 교육자나 윤리학자가 많지 않을까.

인격의 형성이라는 표현이 가진 어려움은, 만일 '인격'이 실재 내지는 자재(自在)하는 것, subsistence이며, 존재(存在)라면 그 형성을 어떠한 성질로 환원(還元)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냐고 요약할 수 있다.

우리는 인격 형성이라는 말 속에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격' 개념이 애매함으로써 오는 것으로 인격의 윤리학에서는 명확한 정의가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인격의 윤리학은 오늘날에도 거의 미개척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본인은 인격의 윤리학에 있어,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고찰하여, 체계적인 인격의 철학 구축을 조금이라도 전진시켜 보고자 한다.

오늘 강연에서는 보통 자유로우며, '자기가 결정적 주체'라고 타인으로부터 분리하여 생각하기 쉬운 인격은 사실은 타인과의 만남으로써 존재하며 살고 있는 '사권의 존재'라는 것에 주목하기 바란다.

II. 인격과 개인

여기서 '인격'의 기초이며 다음의 논의를 돕기 위하여서도 불가결하다고 생각되는 중요한 구별(區別)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것은 많은 경우 간과되고 있으며, 특히 일본에 있어서 인격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는 무시되고 더욱이 배척되기 쉬운 구별이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인격'과 '개인' 내지는 '개체(個體, individual)'와는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구별 없이는 인격의 개념을 적절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인격과 개인의 구별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데 대하여서는 많은 반론이 예상된다.

예컨대 이 두 말 간의 차이를 단지 언어의 차이로서 이것을 구별한다는 것은 '인격' 이해에 하등 기여함이 없다는 반론이다.

더욱이 '인격'이라는 언어나 개념은 신학적 논쟁의 긴, 그리고 오늘날에는 무의미한 것으로 된 역사를 끌어왔으므로 철학이나 윤리학의 vocabulary에서 빼 버리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반론도 있을 것이다. 틀림없이 실천에 있어 행위하는 이 특정의 주체, 즉 나를 '인격'으로 부르거나, '개인'으로 불려도 그 차이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다른 아무 것도 아닌 나 자신은 '하나'임을 확인하며, 이 하나를 뜻하는 한 '인격'과 '개인'은 실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을 존재론적 '하나'라는 넓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인간' 또는 '사람'

Homo Sapience라는 종(種)에 속한 다른 모든 인간에서, 구별된 '이 인간'이라는 의미로 해석했을 때 그러한 '개인', '개별자'의 개념과 '인격'의 개념 간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때 아무리 '이 인간', '개인'은 인간이란 종에 속한 다른 모든 이와 구별된 유일한 바꿀 수 없는 존재라고 주장하여도, 그것으로서 '인격의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인격 고유의 가치를 '개인'에 부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인격의 고유의 가치(Wert)는 무엇인가 등가물(等價



기념 강연

物)에 의하여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가격(Preie)이라는 가치가 아니라, 절대적·내적 가치로서의 존엄(尊嚴, dignitas)은 결코 개체성, 즉 동족에 속한 다른 모든 개체와 구별되는 유일한 것이라는 것에 의하여서는 기초지을 수 없다.

아무리 유일하여도 개체는 다른 모든 개체와 동일 level에 위치하여 있으며 다른 모든 개체와 같이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부분인 이상 언제든지 다른 등가물의 일부분에 의하여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체' 관에 대하여서는 인간이라는 개체는 종이라는 전체, 혹은 사회라는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이라 하여도, 기계의 부분과는 다르므로 간단히 다른 개체에 의하여 바꾸어 놓을 수는 없다고 항의 받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그러하다. 이 항의가 정당한 것은 인간은 단지 개체 또는 개인에 불과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 의한 것이다.

즉 우리는 사람 또는 인간에 있어 인정하고 있는 '인격'으로서의 존엄은 개체성에 의하여서는 기반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나의 논점이며, 그것은 이 항론에 의해서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개개의 인간이 유일, 독자인 개별적 존재인 동시에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격'이라는 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한 것인가. 그것은 인간은 정신적·영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정신적·영적 존재

라는 것은 지성적 또는 이성적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바꾸어 말할 수 있다.

인간의 정신을 '사고(思考)하는 것(res cogitans)'으로서 '확대되는 것(res extensa)'으로서, 물체의 영역에서 분리할 수는 없으나, 인간은 그 정신에 의하여 물체의 영역을 근본적으로 넘을 수 있다는 것과 그것으로서 인격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명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정신'과 '이성적 본성'이라는 말로 표시된 대상 혹은 실재를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일종의 지적 '회심(回心, conversio)'이라고 말하는 사고의 전회(轉回) 내지는 비약(飛躍)이 필요하다. 분명히 우리는 현실을 정신으로 사고하며 인식하는데, 사고하며 인식하고 있는 정신 그 자체가 본질이나 본성으로 되돌아가는 것, 요컨대 자기 인식을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이론적으로 정신 그 자체의 인식으로써 자기 인식에 도달하는 것은 아주 드물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Aristoteles는 "영혼은 어느 의미에서는 있는 그것들의 전부이다(anima est quodammodo omnia)"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간의 정신 내지는 이성적 본성의 본질에 도달한다는 것은, 즉 존재하는 모든 것, 또는 모든 존재하는 것의 제일의 근원과 합치할 수 있는 능력(能力, capacitas)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정신은 모든 존재하는 것의 제일 근원이며, 모든 존재하는 것의 궁극 목적인 것에 직접적으



로 질서지어 있다. 이토록 모든 존재하는 것의 제일 근원이며, 궁극적 목적인 것에 직접적으로 질서 지어 있다는 것이, 이성적 본성으로 불리우는 것의 중추이며 본질인 것이다.

그리고 이 직접적인 질서지음이 정신이며, 이성적 본성을 가진 인격을 어떠한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에 그치지 않도록 하고, 도리어 '전체'를 만들어 낸다. 그리고 그러한 단순한 '부분'이 아니라 이런 의미에서 '전체'인 것이 인격의 고유의 가치, 즉 인격의 존엄을 객관적으로 정초하는 것이다.

여기서 '모든 존재의 제일 근원이며 궁극적 목적인 것'이란 모든 사람이 '신(神)'이라고 부르는 존재이다. 나는 이러한 '신'의 이해는 대체로 이성을 움직여 사고하며, 인식하는 모든 사람 속에 적어도 일반적으로 막연한 방법으로 발견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그 문제에 대하여 여기서는 더 들어가지 않겠다.

여기서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인격'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 "이것을 '인격'의 경첩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이라고 바꾸어 말하여도 좋다 — 위에 말한 의미에서의 인간은 정신이며, 이성적 본성을 가진 것에 대한 통찰(洞察)이 필요·불가결하다는 것이다. 개인의 유일·독자적 존재로서 바꿀 수 없는 가치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인간은 정신이라는 것, 이성적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개인'과 '인격'의 본래의 올바른 의미를 재발견하여 그동안의 결정적인 잘못을 확인하며 존중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개인'과 '인격'이란 말은 구별하여 사용해야 한다. 인격을 둘러싼 실 있는 토론은 여기서 시작된다.

Ⅲ. '사킴'으로서의 인격

인격을 인격답게 하는 것은 다른 모든 개체적 존재 특별히 인간이라는 중에 속한 다른 모든 개인에서 구별된

이 개체적 존재, 개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인간의 정신이며 이성적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라는 '인격'의 이해는 인격에 대한 극히 중요한 통찰(洞察)로의 길을 열어준다.

그것은 인격의 사킴(communication)에서 존재하며 산 존재라는 통찰(洞察)이다.

앞서 인격은 단순히 어떠한 전체(윤리적, 생물학적 혹은 사회적)의 부분이 아니라, 그 자체 어떠한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단순히 비유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임을 강조하였다.

인격이 '전체'라는 것은 그 정신적·이성적 능력과 의지가 모든 존재하는 것을 포함하는 전적인 것(universale), 말하자면 전적 존재(ens universale)나 전적 선(全的善, bonum universale)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한 '전적인 것'은 무한으로 다수에 의해 공유(共有)될 수 있는 것이며, 여기서 인격 사킴의 가능성이 귀결된다. 인격은 '전적인 것'에 관계하는 그 고유의 활동으로 자신을 무한한 사킴으로의 길을 열어준다.

우리는 보통 communication을 '전달', '통신'의 의미로 쓰고 있으나, 그 본래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같이 한다'는 것, 특히 진실로 가치 있는 것의 공유, 서로 나누는 것이다. 그리고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여러 가지 쾌적하며 유용한 것, 예컨대, 재능·성질·명성... 등이 아니라 정신적 가치로서의 진(眞), 선(善), 미(美)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존재이다. 그리고 인격은 사킴으로써 존재하며 살아 있는 존재라는 것은 인격이 인격으로서 영위하는 고유의 활동, 즉 지적이며 정신적인 인식과, 사람이 무한하게 공유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정신적인 가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생물로서는 눈에 보이는 자연계 속에서, 환경과의 상호 관계 속에 살고 있으나, 인격으로서 정신적 가치를 공동으로 탐구하며, 서로 나누며, 공유하는 사킴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

인격이 사킴으로 존재하며, 삶의 존재라는 것은 인격이 근본적으로 사회적, 혹은 공동체적인 존재라는 것과

같다. 그리고 실제로 사림에 있어 존재한다는 것은 사회에 있어 존재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현실 인간 사회에 있어 개개의 인간의 권리나 이해는 때때로 사회 전체(특히 정치적 사회 내지는 국가)의 복지나 이해와 대립하여 그 때문에 개개의 인간이 인격으로서 삶을 실현하기 곤란하게 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 문제는 판 기회에 '인격의 형성'의 문제로서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나, 여기서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인간이 인격으로서, 추구하는 선, 즉 인격에 대응하는 선(善)은 개인에 고유한 사적인 선이 아니라, 모든 인격이 공동으로 추구하며, 또한 모든 인격에 되돌아가는 선, 그러한 의미로서 모든 인격에 의하여 공유되는 선으로서 공동선(共同善, bonum commune)임을 강조하고 싶다.

인격이 추구하는 선은 본래 공동선이라는 진리는, 오늘날 우리가 '인격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탐구하는데, 첫째로 확인하여야 할 진리이다. 인격은 인격인 한, 공동선을 추구하여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 본성적 추구으로 이끄는 선, 그것이 공동선이다. 그리고 '인간은 날 때부터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Aristoteles의 말은 근본적으로 '인간은 인격으로서 공동선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진리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사림으로써 존재하며 산 존재로서의 인격, 혹은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사림인 인격에 대하여 생각해 나간다면, 우리는 三位의 Personal에 있어 하나이신 하느님, 그렇게 말하신 성서의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 Pascal이 말한 철학자나 지식인의 하느님이 아닌 — 에 도달하게 된다.

하느님은 하나이신 하느님이나 사림을 거부하는 고독한 하느님이 아니라, 사림의 하느님이며, 홀로 지혜와 사랑과 생명의 만남 속에서 우리 인간을 인도하시는 성서의 하느님이다.

옛적에 하느님은 Mose에게 자신을 '나는 나다'라고 계시하셨는데, 그 '존재 그 자체'는 자기 존재를 아낌없

이 나눠주어, 만물을 창조하신 사랑의 하느님인 것은 구약에 있어 이미 모두 밝혀져 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이신 하느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아버지이신 성부(聖父), 아버지에게서 태어나 지혜와 말씀이신 성자, 성부·성자(聖子)에서 나신 사랑이신 성령(聖靈)의 하느님의 三位의 Personal의 만남으로서, 하나이신 하느님이심이 계시되었다. 三位의 Personal의 각위(各位)는 관계(關係, relation) 그 자체이시며, 하느님은 참 지혜와 사랑의 사림이시며, 하느님에 있어 존재는 그대로 사림이신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인 하느님은 각기 참 하느님이심으로, 삼자를 합한 전체가 그 어느 것보다도 크다고 할 수 없으며, 이 만남에 있어서는 각위가 참 전체이시며 거기에는 아무런 대립도 없다. 이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만남이며, '사회'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신적 Personal에 관하여 이상 말한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신앙의 신비에 대한 하나의 이해를 시도한데 지나지 않으며, 거기에서 사림으로서의 인격에 대한 이론을 끌어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성서가 가르치는 바와 같이, 인간은 신의 모상에 따라 창조되었으므로 인간은 틀림없이 삼위이신 신의 모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격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인격에 알맞은 삶의 방법을 탐구해 나감에 있어 '삼위 일체이신 하느님의 모상'으로서의 인간이란 신비에서, 풍요로운 영감을 얻어내도록 힘쓰고 싶다.

[강사소개] 稔稔良典 이나가키 료우스케 ; 1928년 사가현에서 출생. 동경대학교 졸업. 미·가톨릭대학대학원 Ph.D. 취득. 남산대학, 큐슈대학 교수를 거쳐 나가사키 준심대학 대학원 교수. 큐슈대학 명예교수. 문학박사. 저서에 『Thomas Aquinas 철학의 연구』 등 다수.

[역자] 조규상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 대한산업보건협회 명예회장